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11. 25.(목) / 총 2매(본문1, 참고1)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 과장 박진홍, 사무관 이양구, 주무관 한승한, 최용민 • ☎ (044) 201-4018, 4019, 4020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 11월 25일 상황

□ 화물연대 동향

- 각 지부별 집회 실시, 총 5,080명(경찰추정)이 참여하였으며 오후에는 전북(군산·익산·부안) 지역에서 550여명, 제주항에서 60여명 집회
- 집회 참여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 추정)의 약 23% 수준으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사항은 없음

□ 항만 운영상황

-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73%, 잠정) 및 반·출입량(4.8만TEU, 잠정)은 평시(73.5%/4.8만TEU)와 유사
-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 주요 조치사항 및 전망

- 부산신항, 울산항, 평택항 및 의왕 시멘트 유통기지 등 차량 출입방해 동향이 있는 지역에는 즉시 경찰 투입 협조 요청
- 4개 업체로부터 긴급수송 요청을 접수하여 화물차 배정 지원 중
- ☞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사전 운송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는 대규모 국가적 물류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

※ 11.26.(금) 계획 : 비상수송대책 및 주요 물류거점 보호조치 지속 실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 한승한 주무관,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4019, 40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지역별 집회 참가인원**

지역	집회인원	지역	집회인원	지역	집회인원
부산항	600	강원(동해항)	30	군산·익산·부안	550
의왕ICD	700	경남(도청)	300	제주항	60
울산항	450	구미(시청)	240	천안·서산·당진	580
인천·평택항	100	광주(삼성전자)	300	충주·진천·단양	270
광양항	600	대전	-	포항(포스코)	300